

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

10월 23호

◆ 번역 기사

1. 베이부만, 국제 무역 신(新)통로의 “독특한 풍경”
看国际陆海贸易新通道上的“独特风景”
2. 상하이자동차그룹(上汽集团)직영, 유럽 항로 첫 출항
上汽集团欧洲自营航线启航
3. 교통운수부, 13·5규획의 목표 달성 머지않아 실현될 것
交通运输部：预计“十三五”规划目标任务可以圆满实现
4. 2020 글로벌 스마트물류 서밋 개최, 산업 서플라인 체인에 인공지능 활용"
2020全球智能物流峰会召开;帮产业产地供应链装上智慧大脑
5. 10월 상순 중국 8대 허브항의 물동량 현황
10月上旬,我国八大枢纽港口外贸集装箱业务进一步提速
6. 중구물류, 광둥 둥관항 컨테이너터미널 지분 49% 인수
中谷物流完成受让东莞港集装箱码头公司49%股权
7. 난사자무구, 국제해운보험 세제혜택 및 선적항 환급 등 정책 수혜지역으로 부상
国际航运保险税收优惠、启运港退税政策落地 南沙自贸区迎政策红利
8. 중국 국내무역 컨테이너 운송시장 새로운 기회를 맞아
新发展格局下,内贸集运发展迎来新机遇

◆ 기타 동향

9. 2020년 국가 물류허브 건설 리스트 발표

2020年国家物流枢纽建设名单出炉

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News/202010/t20201029_1344991.shtml

10. 광군제 일일 택배량 4.9억건 예상

“双11”日均快递量预计4.9亿件

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News/202010/t20201029_1344957.shtml

11. 2020년 상하이항 위험화물 돌발사고 종합처리 긴급대응 훈련 성공적 실시

2020年上海港船载危险货物突发事件综合处置应急演练在上海成功举行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0ptxldsRXHIWtCT29guloQ>

12. CMPort, IMT-2020(5G) 대회 참석

共商5G发展 | 招商港口出席IMT-2020 (5G) 大会

https://mp.weixin.qq.com/s/hn26yuyx_nSoJoh3LIS9Ew

13. 아라산커우 국경통상구 통과 중~유럽 블록트레인 4,000편 초과

新疆阿拉山口口岸进出境中欧班列突破4000列

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News/202010/t20201029_1344973.shtml

14. 장시성 최대 투자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개시

江西省投资规模最大集装箱码头开港运营

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News/202010/t20201028_1344941.shtml

작성자 : 장형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

육천란 중국연구센터 연구원

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

감수자 :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

(kmishanghai@naver.com/+86-21-6090-0395)

베이부만, 국제무역 신(新)통로의 “독특한 풍경”

■ 지난 10월 15일 중국 광시 난닝에서 “제11차 범베이부만 경제협력 포럼 ; 2020 베이부만 국제관문항 협력 정상회의(이하 “정상회의”)가 개최되었음

- 동 정상회의에서는 ‘국제 포털항, 육해 신통로 건설 : 범 베이부 협력 신시대’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음

■ 원-원 방식의 접근

- 베이부만의 신통로는 남쪽으로 아세안 주요국과 연결되고, 북으로는 충칭, 간쑤, 신장 등지와 연결되며, 동쪽으로는 동북아 및 북미 등 지역과,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및 유럽으로 연결되는 허브로 동서남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‘일대일로’의 복합형 대외개방 통로임
- 베이부만 국제 육해무역 신통로 건설로 인해 아세안 과일의 대 중국 및 유럽 수출기간이 단축되었고, 유럽의 고품질 유제품이 중국과 아세안 주요국에 손쉽게 배송될 수 있었음
-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통로를 통해 의료물자와 식품 등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등 국제 무역 신통로의 해상-철도 연계 운송량은 두 배로 증가함

■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해 육해 신통로 협력 집중

- 2006년 출범한 ‘범 베이부만 경제 협력 포럼’ (이하 범북포럼)은 지난 14년간 10회째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범베이부만 협력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음
- 최근 몇 년간 중국-아세안 항만도시 협력 네트워크는 39개가 구축되었으며, 여기에는 중국과 아세안 주요 항만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음
- 포럼 참석자들은 글로벌화로부터 지역통합으로의 전환, 국제 관문항 건설 공동 노력, 범베이부만 협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

■ 국제관문항 건설을 통한 기회 포착

- 최근 몇 년간 베이부만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, 2019년 베이부완(北部湾)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382만TEU로 전년동기 대비 34.6% 증가함
- 2020년 7월 진저우(钦州)항에서 10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취항했고, 30만 톤급 유류 부두, 광청항 401호 선석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연내 준공 계획임. 또한 진저우항 20만톤급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, 광청항 30만톤급 부두 등이 잇따라 착공됨
- 2022년까지 베이부만은 20만톤급 컨테이너선과, 30만톤급 벌크선이 취항하게 될 예정임
- 베이부만 국제 관문항 건설은 중국-아세안 협력의 국제 항구로 성장할 것이며, ‘일대일로’의 해운물류 허브로서 국제 공급사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

(中国水运报, 2020. 10. 20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XbgACIBizx-A-WK8AhMBFg>

상하이자동차그룹(上汽集团)직영, 유럽 항로 첫 출항

- 상하이자동차그룹은 2020년 10월 20일 유럽항로에서 자체 운영 노선을 시작했다고 발표함
 - 상하이자동차 그룹 소유의 적재량이 가장 큰 로로선 ‘상하이자동차안지피닉스호’ (SAIC ANJI PHOENIX)가 1,800여대의 MG 전기차를 적재하고 유럽으로 첫 출항함
- 상하이자동차 계열사인 안지물류(安吉物流)는 글로벌 선두의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전문물류 기업으로 연간 천만대 규모의 완성차를 처리하고 있음
 - 안지물류는 2016년 중국기업 최초로 독자 운영 로로선을 이용한 중국-동남아 항로를 개통했고, 2019년에는 서남미 항로를 개통하여 중국에서 남미 서쪽 해안까지 가장 빠르게 연결하고 있음
 - 이번 유럽 노선에 첫 취항한 ‘상하이자동차안지피닉스호’는 4,300대의 차량을 적재할 수 있으며, 같은 선형보다 연료 소비량이 10% 이상 낮음
 - 또한 상하이자동차가 보유한 최대 적재량의 로로선으로 앞으로 유럽시장의 자동차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임
- 유럽노선 개통 이후 상하이자동차는 동남아, 멕시코, 서남미, 유럽의 4개 국제 항로를 보유하게 되어 동-서 양방향의 국제 항로를 구축하고,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형성하게 됨

(中华航运, 2020. 10. 21.)

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TodayTopNews/202010/t20201021_1344645.shtml

교통운수부, 13·5계획의 목표 달성 조만간 실현

■ 국무원 신문관공실은 2020년 10월 22일 ‘교통수송 13·5 발전성과’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, 이 자리에서 교통운수부 리샤오펑 부장은 13·5계획기간 동안의 성과를 언급하면서, 계획기간 동안의 목표가 원만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음

■ 교통운수 발전 가속화

- 13.5 기간 말까지 교통 고정자산 투자 16조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, 철도 운영 길이는 총 14만 6,000km로 인구 20만 이상 도시의 99%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됨. 이중 고속철도는 대략 3만 8,000km이고, 이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의 95%를 수용함
- 도로 개통 거리는 약 510만km로 이 중 고속도로가 15만 5,000km임. 고속도로 통행거리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와 지급 행정중심지의 98.6%를 수용하고 있음
- 내하의 고등급 항로는 총 1만 6,100km, 연해항구의 만 톤급 이상 선석은 2,530개임. 도시 철도는 총 7,000km, 민용 공항은 241개로 지급시의 92%를 수용함

■ 전면적인 교통 빈곤 탈피 실현

- 중국 정부는 누적 9,500억 위안 이상의 차량 매수세자금을 빈곤지역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지원함
- 이 자금은 전국 차량 매수세 총액의 약 68%를 차지하고 있는데, 주로 빈곤지역의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및 농촌 도로 건설에 쓰였음
- 농촌의 도로가 빠르게 발전했고,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새로 건설되었거나, 개축된 농촌 도로는 138만 8,000km로, 금년 말까지 140만km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

■ 국가 중대발전 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

- 베이징 다싱국제공항, 강주아오대교, 징장고속철도, 옌충고속도로, 창장난징 이하의 12.5미터 심수 항로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완공되었음
- 징진지 협동 발전 및 숭안신구(雄安新区) 건설과 창장 경제벨트, 창강 삼각주 일체화, 웨이강 아오대만구, 황하유역의 생태보호와 질적 발전, 청위쌍청경제권(成渝双城经济圈)과 하이난자유 무역항 등 중대 전략 프로젝트를 지원함
- 이를 통해 일대일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‘육랑육로(六廊六路) 다국다항(多国多港)’의 상호연결 구조가 기본적으로 형성됨

■ 운송서비스 품질향상과 원가 절감 실현

- 고속열차 승객이 전체 철도 승객의 약 70%를 차지함. 민항기의 정상 운항율은 12·5기간 말의 67%에서 2019년 81.65%로 상승함
- 유료도로 개혁을 통해 고속도로 성(省)간 톨게이트를 없애는 등 도로 운행의 효율을 대폭 높임

- 운송 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철도 화물량이 전체 화물 운송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7.8%에서 2019년 9.5%로 늘어났음
- 수운은 14.14%에서 16.17%로 증가하였으며, 컨테이너의 철도-수로 연계 운송량은 연평균 20%가 증가함
- 택배업무량은 30% 이상 증가했으며, 택배업무 총 처리건수 및 증가율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
- 지난 5년간 절감된 물류 원가는 4,500억 위안에 달하고, 전 업종별 안전관리 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었음

■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업태의 발전

- 해저터널, 심수항로, 고속철도 건설 기술 등이 세계 상위권에 올랐고, 상하이 양산항 4기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건설이 추진되었으며, ‘푸쥔호(复兴号)’ 열차가 정식으로 운행됨
- 중국 최초 개발 여객기 C919기가 첫 비행을 했으며, 북두위성기술 적용과 응용이 한층 더 심화되었고, 고속철도 및 민항기가 얼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함
- 공유자전거의 일평균 이용량은 4,570만 건을 넘었으며, 온라인 렌트카, 커스텀버스, 온라인화물운송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비스가 속속 늘어나고 있음
- 우편스마트택배 단말기 보급이 늘어나고, 드론, 무인 자동차, 무인 창고가 택배분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음

(中国水运报, 2020. 10. 22.)

https://mp.weixin.qq.com/s/j6O6PMsa4P_TrOnfhYsK7A

2020 글로벌 스마트물류 서밋 개최, 산업 서플라인 체인에 인공지능 활용

■ 2020년 10월 22일 오전 JDL정동물류 주최로 개최된 2020 글로벌 스마트 물류 서밋에서 정동물류 CEO 왕전후이는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물류업계의 변화에 대해 발표를 하였음

- 왕전후이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대격변이 물류업에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했으며, 물류와 과학기술의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말함

■ 핵심은 개방과 기술

- JDL정동물류는 앞으로 개방과 기술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사슬의 스마트화를 추진해 사회 인프라에 디지털 파워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밝힘
- JDL정동물류는 과거 상하방 정보 분할, 재고수준, 배송시간 지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하고, 이를 통해 재고수준을 30%까지 낮추고, 배송빈도도 주 2~3회에서 6회로 증가시켰다고 밝힘
- 또한 자체개발한 솔루션을 통해 일일 10만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으며, 긴급관리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빅데이터, 블록체인, 베이더우 네비게이션을 기반으로 긴급물자 5대 문제(찾기, 관리, 조정, 전달 및 추적기능)가 해결되었다고 밝혔음

■ 물류기술을 통한 2차 성장 동력 창출

- 왕전후이는 JDL정동물류 과학기술 브랜드인 'JDL물류테크'는 '간단한 방법으로 복잡함을 처리하는' 브랜드 이념을 고수하며, 혁신적인 기술과 다양한 환경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디지털화, 스마트화하고,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일체화한, 공급사슬 물류기술 상품 및 솔루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
- JDL정동물류는 물류기술에 대한 투자도 계속할 것인데, 향후 5년 안에 10만 대 이상의 로봇을 사용하여 창수(常熟)시를 세계 최초의 무인 배송 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함
- 창고관리 플랫폼인 징둥원창(京东云仓)은 3년 안에 전국의 모든 구, 현을 모두 커버하여 구매율이 낮은 상품들은 집중관리하고, 구매율이 높은 상품들은 우선관리하며, 산지상품의 위탁 배송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힘.
- 왕전후이는 이러한 물류기술 개발을 통하여 일용소비재, 전자, 에너지, 공업품, 자동차 등의 업계가 공급사슬 기술 솔루션을 통해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

※ 2020 글로벌 스마트물류 서밋 온라인 다시 보기(<https://gssc.jdl.cn/>)

(猎云网, 2020. 10. 22.)

http://www.sanqin.com/2020-10/22/content_8739244.html

10월 상순 중국 8대 허브항의 물동량 현황

- 중국항만협회가 발표한 2020년 10월 상순 항만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10월 상순 연해 항만의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15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중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23.1% 증가했으며, 장강 유역 허브항의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3.5% 감소함
- 8대 허브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
 - 중국세관에 따르면 올해 9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.4% 증가했으며, 이중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.9%와 13.2% 증가하는 등 최근 중국의 수출입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10월 상순 8대 허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.4% 증가했으며, 이중 텐진항, 상하이항, 닝보-저우산항, 샤먼항, 광저우항, 선전항의 경우 20% 이상의 물동량 증가를 기록함
- 석탄 물동량 증가, 재고량은 감소
 - 최근 공급 부족 및 수요 회복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석탄 가격이 지속 상승하여 이미 4개 정부 부처의 가격 모니터링 적색 구간에 들어섰음
 - 시장에서도 석탄공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내이멍구(内蒙) 산시(陝西) 등 생산지에서는 석탄 생산능력을 회복하고 석탄 공급량을 늘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
 - 10월 상순 석탄 거래가 활발해 진황도(秦皇島)항과 산화황화(神华黄骅)항의 석탄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9.3% 증가했으며, 특히 진황도항은 전년동기 대비 19%나 증가함
 - 항만의 석탄 재고량은 전년동기 대비 25.9% 감소했으며, 석탄 수입도 9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38.3% 감소한 1,867.6만톤을 기록하는 등 수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
- 원유 물동량 비교적 빠른 성장세 유지
 - 10월 상순 원유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아 국제시장의 원유 가격이 한때 요동쳤으나, 불리한 요소들이 속속 해소되면서 원유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섬
 - 9월 원유 수입량은 4,848.2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.6%, 전월대비 2.1% 증가하는 등 최근 중국의 원유 수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
 - 10월 상순 연해 항만의 원유 처리량은 전년동기 대비 27.7% 증가했으며, 특히 다롄항의 원유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% 가까이 급증함
 - 10월 10일 현재 중점 모니터링 대상 항만의 원유 재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.1% 증가하여 높은 재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
- 금속광석 물동량 증가
 - 중국 내수경기 호전, 철강시장 수요 활성화 등으로 9월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동기 대비

9%, 8월 대비 8.2% 증가한 1.1억톤을 기록하여 6월 이후 연속 4개월째 1억 톤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

- 10월 상순 중점 모니터링 대상 항만의 금속광석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21.2% 증가했으며, 항만의 철광석 재고량은 전년동기 대비 7.4% 감소함

■ 장강 허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크게

- 10월 상순 장강 허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크게 증가했으며, 이중 난징항, 우한항, 충칭항등 3개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16.3% 증가, 우한항의 경우에는 50% 증가함

(航运界, 2020. 10. 20.)

http://www.ship.sh/news_detail.php?nid=40335

중구물류, 광둥 등관항 컨테이너터미널 지분 49% 인수

- 최근 상하이중구물류주식유한회사(上海中谷物流股份有限公司)가 싱가포르 MPA 산하 DGCT사가 보유한 등관항국제컨테이너터미널유한회사(东莞港国际集装箱码头有限公司)의 지분 49%를 인수하였음
 - 이에 따라 등관항무그룹(东莞港务集团)과 중구물류가 각각 등관컨테이너터미널의 지분 51%와 49%를 보유하게 됨
- 등관항무그룹은 등관시 소속 전액 국유출자기업으로, 등관항 핵심 자원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
 - 등관항은 주강(珠江) 입구의 동측과 광저우, 등관, 선전, 홍콩 도시 발전축의 중간지대, 그리고 주강삼각주 경제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, 53km의 해안선과 79km²의 해역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심수항만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함
 - 2019년 등관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00만TEU를 초과했으며, 물동량 기준으로 광둥성 연해항만 중 3위, 전국 연해 항만 중 12위임
- 2007년 7월 설립된 등관항컨테이너터미널은 샤텐(沙田)항에 5만톤급 컨테이너 선석 두 개(5번 및 6번)를 운영하고 있으며, 연간 하역능력은 170만TEU임
 - 등관항컨테이너터미널은 등관시 서부와 주강 입구에 위치해 주강 주향로와 연결되며, 홍콩과는 50마일(NM), 선전과는 30마일, 광저우 난사와는 약 7마일 떨어져 있고 주강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입지우위가 뛰어남
- 중구물류는 중국 최대의 국내무역 컨테이너선사 중 하나로 대형 연해 컨테이너선 12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60여 개의 연안 간선노선을 운영하고 있음
 - 중구물류는 중국 연해 지역의 거의 모든 허브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또 화남지역의 주요 국내무역 컨테이너선사 중 하나임
- 중구물류의 등관항컨테이너터미널 지분 인수로 중구물류와 등관항무그룹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 향후 등관항의 저력을 더욱 발휘해 중국 서남 및 화남지역과 동부 연해 성시 간 산업 및 무역투자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

(航运界, 2020. 10. 13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0EsWxEgbNxIJhV4ZqABgtQ>

난사자유무역구, 국제해운보험 세제혜택 및 선적항 환급 등 정책 수혜지역으로 부상

- 2020년 10월 9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난사자유무역구에 국제해운보험 세제혜택과 선적항 환급 등 정책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함
 - 우선,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난사자유무역구에서 국제해운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함
 - 또한 10월 1일부터 주강삼각주 소재 9개 도시의 37개 항만을 화물 선적항으로 하고 난사(南沙)보세항구와 치엔하이(前海)보세항구를 출항항으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증치세 환급정책을 시행하기로 함
- 선적항 환급정책으로 15일 정도의 증치세 환급 기간 단축 가능
 -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화물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증치세를 환급받으려면 화물이 수출항(연해 항만 또는 허브항)에 도착해 통관절차를 마쳐야 신청 가능함
 - 그러나 선적항 환급정책 하에서는 화물이 선적항(일반적으로 소규모 부두)에서 출항하면 수출로 간주해 증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함
 - 따라서 난사보세항(현재 난사종합보세구역으로 승격)의 경우 국내 수상운송 화물이 선적항에서 난사종합보세구역 내 난사항으로 출항한 것이 확인되면 수출로 간주하여 증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
 - 따라서 이번 선적항 환급정책의 실시로 수출기업들은 기존에 국내 선적항에서 난사항에 도착해 증치세 환급 신청까지 소요되던 15일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자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게 됨
 - 한편, 난사항측은 환급정책의 실시로 수출 및 환적화물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
- 세제혜택으로 해운보험에 새로운 기회 창출
 - 현재 상하이, 톈진, 선전, 푸지엔(福建) 평탄(平潭) 등 4곳에 국제해운보험 세제혜택이 적용되고 있는데, 주로 해당 지역에 등록된 보험회사가 국제해운보험업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에 대해 영업세(상하이의 경우 2016년 세제개혁 이후 증치세로 변경해 적용)를 면제해주고 있음
 - 난사자유무역구가 어떤 형태로 해당 혜택을 적용할지는 현재 미정이며, 추가적인 정책적 결정에 따라 예정임
 - 난사항은 그동안 국제해운보험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일부 사업을 다른 지역에 빼앗겼으나, 이번 정책을 계기로 난사지역 해운보험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

(中国水运网, 2020. 10. 11)
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71135>

중국 국내무역 컨테이너 운송시장 새로운 기회를 맞아

- 현재 중국 경제는 동부 연해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중서부 지역은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는데 국내 무역 컨테이너 물동량 통계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남
- 최근 몇 년간 북방지역 항만의 운송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, 화남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운송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'2019중국해운발전보고'에 따르면 중국 10대 국내 무역 컨테이너항 중 둥관, 샤먼, 상하이항의 물동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, 잉커우, 다롄항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2019년 20대 국내무역 컨테이너항을 보더라도 포산(佛山)항의 물동량 증가율이 전년대비 37.5%(81만TEU)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다롄항은 전년대비 25.9%(142만 TEU) 감소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음
- 한편, 20대 내지선 컨테이너항 중에서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만은 중산(中山)항(19.4만 TEU, 120.2%)이며, 가장 크게 감소한 항만은 난통(南通)항(13.6만TEU, 11.6%)임

< 중국 10대 국내 무역 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실적 >

단위: 만 TEU, %

구분	2019년		2018년		2017년	
	물동량	증가율	물동량	증가율	물동량	증가율
광저우	1420.85	3.1	1378.61	8.7	1268.55	12.4
텐진	856.36	7.5	796.55	13.4	702.66	2
상하이	633.85	1.2	626.22	3.5	605.3	15.4
칭다오	601.28	14.7	524.16	-	441.22	-25.8
잉커우	542.76	-15.2	640.19	3.5	618.31	4
르자오	417.18	9.3	381.67	-	307.85	6.5
둥관	379.2	14.3	-	-	-	-
샤먼	351.96	3.8	339.18	15.3	-	-
쑤저우	341.52	-0.8	344.4	8.9	316.31	5.8
다롄	332.66	-23.8	436.66	0.2	435.79	-0.5
닝보-저우산	-	-	303.16	1.4	299.08	26.2
후먼	-	-	-	-	308.7	10.6
렌윈강	-	-	-	-	-	-

자료: '2019중국해운발전보고(2019中国航运发展报告)'

- 향후 지역경제 통합이 지역경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, 동시에 정부의 '쌍순환' 발전정책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
-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·정치연구소 국제투자실 장밍(张明) 실장은 향후 웨강아오대만구(粤港澳大湾区), 장강삼각주 및 징진지(京津冀) 지역을 Tier1, 정저우, 허페이(合肥), 우한 등 중부 삼각지역과 칭두, 충칭 시안 등 서부삼각지역을 Tier2, 기타 지역을 Tier3으로 하는 발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힘

■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가 향후 트렌드

- 코로나19로 도로 및 철도운송 모두 영향을 받았지만 컨테이너화물의 수로운송은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이점이 부각되는 등 코로나19는 중국의 컨테이너 화물 수로운송에 새로운 기회가 됨
- 선진국의 국내무역 화물의 컨테이너화 비중이 70%~80%나 되는데 비해 중국은 20% 정도에 불과해 향후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며, 컨테이너화가 미래의 발전 대추제가 될 것으로 보임
- 일례로 중국 3대 국내무역 컨테이너선사인 상하이중구물류주식유한회사는 ‘컨테이너로 중국의 물류방식을 변화’ 시키는 것을 기업 모토로 삼고 있음
- 아울러 푸지엔성, 허베이성, 산둥성, 상하이시 등 지역의 항만 감독관리기구들은 계속해서 ‘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’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컨테이너화 비율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

■ 향후 ‘쌍순환’ 관련 지원정책의 시행으로 내수가 촉진됨에 따라 화물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, 국내무역 및 컨테이너 물류 수요 증가로 국내무역 컨테이너 운송시장도 큰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

- 중국 정부의 '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(이중순환) 상호 촉진 발전구도 구축' 전략에 따른 중국 경제 및 산업구조 조정, 지역 간 분업 및 협력 강화, 하이테크 및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향상, 전기제품 및 대량 완제품 수송량 급속 증가 등으로 향후 컨테이너화에 적합한 화물의 비중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

(中华航运, 2020. 10. 23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7kOxp7ADX-2tmtZd1kOxkA>